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07.02.2023

2023년 7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5명 (자체 파송 76%)

GRACE 선교소식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 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7월 선교일정

▷ 은혜동산 TD 15기 & 지방교회 방문 (7/22-7/31)

7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은혜동산 TD 15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 정00 이00 선교사

너 무나 놀랍고도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동안 훈련 받고 성장한 많은 현지사역자들이 틈만 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수고가 드디어 마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랍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 사역자는 7년째 정부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천명의 학생들과 수십명의 동료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그런 그를 다시 무슬림으로 회유하던 이들마저 도리어 같은 복음전도자로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역자들의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소문을 듣고 귀신들린 자, 병든 자들이 수백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매 주마다 2-3가정씩 찾아와 고질적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며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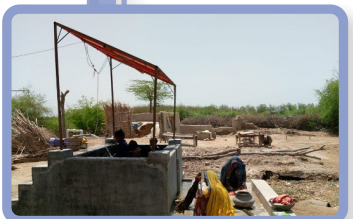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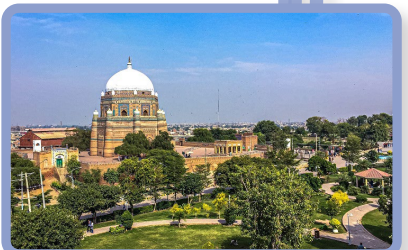
또한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던 중 예수를 믿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었으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역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무슬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는 마치 눈 앞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보이는 것 같은 선교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홍수로 고통 받던 이 땅에 추수의 일꾼들을 친히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NGO 단체의 도움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우물을 25군데 설치하여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식수를 구하거나 빨래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태양광 전기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을 식수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수많은 무슬림들의 회심과 예배 참여에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오히려 강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혹시라도 발각되어 감옥에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3 GMI 세계선교대회 광고

D-78

"여기, 섬기실 자리 있어요!"

공개 모집

총무팀

상황실, 개막식, KITCHEN & REFRESHMENT, DECO, 집회 순서 및 진행, 휴게실,

총무/관리팀

식당, REFRESH, 등록, 선교부스, 먹거리 부스, 상황실, 의료 선교, 셋업, PALANCA(선물), 무료나눔 행사, MK프로그램 (EM팀), 선교사 케어, 주차봉사, 가든 조형

등록/민박/호텔 팀

등록, 호텔, 민박, 안내데스크, 공항마중, 관광 가이드/도우미, WELCOME PACKAGE

KITCHEN & REFRESHMENT 팀

주방봉사, REFRESHMENT 간식, 먹거리 장터

사진/DECO 팀

참가자 개인 사진 촬영, 배경, 친교실, 본당

MEDIA/DESIGN 팀

역사자료 정리, 비디오, 사진 촬영, 웹사이트, 번역, 글편집, 뉴스레터

차량팀

공항 영접 짐 관리, 이동

선교대회 기간

9.18(MON)-21(THUR), 2023

문의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GKCGMIUSA@GMAIL.COM

함께하는 기도

- GMI 선교사들이 다 모여 화합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세계선교 마무리 비전을 심어주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탄자니아

- 송규영 오효숙 선교사

지난 5월 9일 거주비자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

쳐주기로 약속하고 장소와 기기들을 이미 마련하였는데 조속히 정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에버그린 학교 확장 건축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제9기 성경대학을 개강하였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며 주말에

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잘 훈련받아 복음의 용사들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아내 오효숙 선교사의 간수치와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완치되기까지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쿠바

- 안희진 구스타보 선교사

6월초 쿠바 전역에 교회가 개척되는 비전을 가지고 60여명의 신학교 5기생들과 17명의 졸업생들이 첫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4박5일 동안 조를 나누어 노방전도와 치유 및 심방사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결신하였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무당들과 박수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큰 결실은 이번 전도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가정교회가 47개나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결신한 사람들이 교회에 더 잘 정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6월 28일부터 이번엔 결신한 사람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티디를 합니다. 타주에서 진행될 첫 지방 티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라과이

- 김돈수 김미정 선교사

파라과이 AFA 10기를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62명의 캔디데이트와 55명의 팀멤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펜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4년만에 다시 열린 AFA 10기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10명의 팀멤버가 와서 파라과이 팀멤버들과 즐거이 동역하며 GMI 안에서 나라를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임을 경험

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멤버 식사때는 팀멤버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이 계속 이어져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중국

- 조OO 윤OO 선교사

영어 공부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현지 대학생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연령과 신앙배경 등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더불어 유물론적 사상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믿음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갖는 노인과 부녀자 그리고 문맹자들의 것으로 취급받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진지한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들의 작은 믿음이 훗날 이 땅 곳곳에 흩어져 복되고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사랑의 대사들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1분단상 118-7월호>

-김대규 장로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하는 실 천적인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일꾼의 신분은 섣다르다. 그저 주의 일을 맡아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이 때의 일꾼은 “huperetes”(휘페레테스)인데 로마시대때 전투함인 갤리선의 밑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한다. 승리를 위해 전장의 장군이 명령하는대로 노를 젓는 것에만 집중하는 순종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이는 사도바울의 자신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다, 순종과 헌신의 총체인 충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모습은 진정 이러한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룸도 없이 주의 영광만을 위해 오직 순종,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하여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인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우리는 “말은 자”로서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다.

이 때 말은 자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만에 집중하는 자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예속된 자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므로 거짓없는 신실한 충성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거짓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희생과 섬김보다는 지위나 권위를 추구하고 내세웠던 것은 아닌지를 셈하여 보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모두가 되어 지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한다.

종은 충성의 예화를 소개한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 코자크족에게 포위되어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량들은 끊기고 퇴로는 막혔는데 한겨울 눈보라는 몰아치고 강물은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나폴레옹은 물길이 얇은 쪽을 골라 선발된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가 교각의 다리처럼 가교를 붙들고 서 있게 하여 다리를 완성시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마지막 병사가 가교를 건너가자 물속에서 가교를 붙들고 있던 병사들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교를 붙든 채 모두가 얼어 죽은 것이었다. 이것이 신실한 충성의 한 예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우리도 신실한 충성된 섬김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룸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져 삶으로 주를 나타내며,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이 땅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케 되도록 매진하는 헌신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